

# 작심한 안철수 “DJ·盧 극복해야 새 비전”

### 수권비전위 설치, 19대 총선·18대 대선 공개검증 요구

### ‘낡은 진보 청산’ 두번째 혁신안 발표...문재인과 대립각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우리 당은 배타적이고 패권적 문화가 가득 차 있으며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두 번째 혁신과제로 ‘낡은 진보청산’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안 전 공동대표는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계승은 극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 2기, 또는 잠여정부 2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주류 측을 정면 겨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배타성 ▲과도한 이념화에 따른 무능 ▲정치행태와 정책기조의 불안함 ▲새로운 발전 담론과 개혁의제를 선도하지 못한 무(無)비전 등 4가지 ‘낡은 진보’로 규정했다.

‘낡은 진보 청산’을 주제로 한 이번 회견은 지난달 20일 ‘당 부패적결 방안’에 이은 안 전 대표의 혁신 시리즈 2탄이다.

그는 “자신은 선, 상대는 흑 백논리로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말정치와 퇴로 없는 강경투쟁을 일삼는다”며 “2012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온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 지난 대선 때 통진당 후보와의 연대는 얻은 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잃어버린 실책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4대 기조로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의 새로운 정치구도 구축 ▲이분법적 사고 및 관료주의적 병폐 해소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 척결 및 품격있는 정치선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극복을 제시했다.

그는 “전 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

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 당은 ‘포스트 DJ·노무현시대’의 새 비전과 역량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정권창출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가능하다. 이것이 두 전직 대통령의 뜻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5가지 실행방안’으로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

혁 TF’ 설치 ▲자기반성 차원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 검증 ▲원칙 없는 선거·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그는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며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당을 리셋 합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포스트 국감’ 암초 수두룩

### ‘역사·노동·예산 처리’ 전문 고조... 13~16일 대정부질문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노동개혁,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여야의 전문이 고조되고 있다.

3개 사안 모두 좌우 진영의 이념적 요소와 결부돼 있어 내년 총선과 맞물려 여야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우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각각 구성,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당장 이번주 기정사실화한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 발표가 이뤄질 경우 여당은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권은 국감 기간 잠시 소강상태였던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과연근로자법) 개정 작업에

도 박차를 가할 태세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까지 이어지는 여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는 야당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이밖에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민·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나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첫 번째 충돌은 오는 13~16일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 될 전망이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까지 4개 분야에 공격수를 전진 배치한 여야는 ‘장과 방패’의 대결을 벌이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도 오는 28~30일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대치 정국이 형성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 10·28 재보선 전남 3곳 후보 11명 등록

전남 3곳에서 치러지는 10·28 지방의원 재보선에 모두 1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11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오는 28일 함평 제2선거구(도의원), 목포시 라선선거구·신안군 나선선거구(이상 시·군 의원)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함평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정희(49·새정치민주연합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와 설명수(66·구산제일교회 장로)·이재인(54·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후보 등 무소속 2명이 등록했다.

목포에서는 이재용(62·전 바르게살

기운동 목포시협의회장), 서조원(66·전 목포시의원), 천정우(50·전 만흥동 방위협의회 위원), 송지원(47·무소속·전 해양환경관리공단 목포부소장) 후보 등 4명이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자를 결정하지 못해 무공천 지역으로 했다.

신안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근(62·새정치민주연합 무안·신안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와 전남주(50·해운 생활체육회장)·박인석(58·수우약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최승환(53·남산장호산업 대표이사) 후보 등 무소속 3명이 등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野 ‘통합 전대’ 재점화되나

새정치연합 비주류 진영에서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당 혁신’을 고리로 주류 측에 대한 반격에 나서는 동시에 천정배 의원 등 신당파와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지난 17대 국회에서 천 의원 주축으로 활동한 ‘민생모(민생정치모임)’ 멤버들은 19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천 의원 이외에 새정치연합내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정성호 민생본부장, 문병호 의원 등이 초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주류 진영은 천 의원 등 신당파 인사

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회동은 비주류발(發) 통합 시도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에는 비주류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과 ‘콩나물모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뭐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혁신 토론 회를 연다.

특히,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신당 세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회동, 신당 통합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고향인 전북 순창에 접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다음달 중순 ‘갑자 케는

# ‘민집모’ 12일 혁신토론회·千사단 ‘민생모’ 19일 회동

세(勢)를 시위하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1일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측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신당파들의 통합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신당 세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회동, 신당 통합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고향인 전북 순창에 접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다음달 중순 ‘갑자 케는

날’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 당시 몸담았던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가 최근 활동기한 만료로 소멸하면서 정 전 의원과 국민모임과의 관계도 정리된 상황이다.

특히 야권 재편이 활발한 가운데 정 전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손을 잡는다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장 내년 총선부터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을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